대학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과제*

이 현 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Ⅰ.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대학의 주요 기능은 교육, 연구, 봉사로 집약된다. 특히 이러한 기능 수행에서 대학은 '참다운' 지식과 '올바른' 실천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대학의 3R'(college 3R)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right knowledge), 올바른 신념(right belief) 그리고 올바른 실천(right practice)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 점에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지칭되는 오늘날의 대학은 '도덕적 기업'(moral enterpris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대학에서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러한 대학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대책이나 처방에 관한 논의는 종합적 시각에서 다루어지기보다 간헐적이고 부분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학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이 강하고 사회적 엘리트 교수 집단이 미성숙자를 교육하여 엘리트로 양성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교육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사회 체제보다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곳이다.

한편 21세기는 교육과 기업 활동은 물론 집단이든 개인이든 간에 보다 투명하고 보다 공정하며 정의로운 측면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OECD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윤리 라운드'(Ethics Round, ER)가 시작되었고 윤리 라운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상무성 주관하에 '좋은 국제기업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윤리 모델을 제공하고 교육자문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900여 개의 대학에서 기업윤리 강좌가 개설되어 기업윤리 전공석사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영, 1999)

이웃 일본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윤리 실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에 비추어볼 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수행하는 대학에서의 도덕성은 더욱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격의 성숙과 윤리 감각 없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이러한 새로운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그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도덕성은 모든 교육의 근간이며 관습과 법보다 우선되고 중시되는 규범이라

*이 글은 2000년 11월 24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된 도의 실천 학술세미나에서 기조강연한 원고를 수정·요약한 것이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대학들에서도 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적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회봉사 등을 통한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도덕성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질문은 전통적으로 윤리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동시에 윤리의 권위를 의심하는 경향이 날로 더해 가는 현대 사회의 추세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1]

특히 선천적이며 절대적인 윤리의 존재를 의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윤리 그 자체의 의식을 의심하는 사조까지도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은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Ⅱ. 도덕성에 대한 회의와 한국의 대학

오늘날 대학에서의 도덕성과 윤리에 대한 회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험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험론적 사고방식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론적 사고방식의 확산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심화시키고 윤리 현상마저도 경험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게 만듦으로써 물질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윤리의 절대적 가치를 경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국 대학들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 과정에서 교육의 질보다는 양적 팽창주의에 입각한 적당주의 성향이 오늘날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교육에서 적정 규모의 교육 수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교육 방임'이나 '교육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나 인성 지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은 교수들의 소명의식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가르치는 입장의 '교육적 윤리' 그리고 학생과의 만남에서의 인격적 수용 등의 태도 형성이 미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 지나친 취업지향 성향이나 사회적 수요에 바탕을 둔 응용학문 부분에 치중한 나머지 도덕적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초학문이나 순수학문 부분에 소홀해 왔던 점도 오늘날 대학에서의 도덕적 회의와 도덕적 장애를 확산시켜 온 간접 요인이라 생각된다.

특히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도덕적 인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전인적이고 다면적 인성의 배양보다는 특정 전공 분야의 집중화 현상이 짙어 다면적 인성의 배양이나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경쟁적인 개별 대학들의 인성 개발과는 무관한 제도적인 측면과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이 또한 대학의 도덕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한국대학의 도덕성 문제

대학은 대표적인 인간화 기관(human processing agent)이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과정과 도덕적

1) 윤리의 선천성과 절대성을 믿는 절대론적 윤리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목적주의 절대론과 칸트와 바틀러로 대표되는 법칙주의 절대론이 있다.

"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도덕적 인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전인적이고 다면적 인성의 배양보다는
특정 전공 분야의 집중화 현상이 짙어 다면적 인성의 배양이나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

내용 그리고 도덕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도덕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근자에 들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의 도덕성 문제는 입시에서부터 교수 채용 그리고 연구에 관련된 측면에까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대학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점에서 더욱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고 도덕성의 진작 없이는 차세대를 이끌어 갈 공민성이나 세계적 시민성의 연마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시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연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도덕성,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다수 대학들이 도덕적 바탕 위에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교수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우리 나라 45,000여명 교수들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는 절대 대다수 교수들의 성실한 자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수들의 잘못된 실수에서 대학교수 전체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수가 대학 구성원들 중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지식윤리', '교육윤리'를 포함한 '직업윤리'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도덕적 위기의 주된 소산이라 볼 수 있다.

① 교수임용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

교수임용과 관련된 도덕성의 문제는 대학 사회에서 가장 부끄럽고 잘못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수채용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는 소위 채용비리라고 볼 수 있는 것들로서 교수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세부 전공과 부합되지 않은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의 불합리한 선발 관행을 들 수 있다. 또한 훌륭한 적격자를 두고 연고 중심의 선발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것도 도덕적 해이에 속한다.

연고주의는 비단 대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자나 선후배, 동향, 동성 등의 준거에 의해 부적격자 내지 차선자를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떳떳한 일이라 볼 수 없다. 대학에서의 신규 교수채용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교수보다 우수한 신임 교수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② 연구와 관련된 도덕성 문제

교수들에게 있어서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한 측면은 연구 관련 도덕적 해이에 관한 논란이다. 연구의 실적물에 있어서의 진위 문제와 연구비 관리과정에서의 불투명성 그리고 연구수주과정에

서의 떳떳하지 못한 일면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조교의 활용 범위나 조교의 연구비 지급 관련 문제 등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었다.

특히 BK21사업과 관련된 일부 대학들에서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부분도 연구와 관련된 도덕성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없지 않다.

③ 학생 선발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

학생 선발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는 실기 과목과 관련된 일부 예체능계 분야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극히 극소수의 교수들과 관련된 문제였다. 그러나 관련된 교수가 많든 적든 간에 예체능계 입시와 관련하여 교수들이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교육 관련 부패 문화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사회 · 문화적 환경과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가치관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청탁 문화와 편법주의 등의 개인적 이기주의가 교육현장에까지 확대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 선발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는 학력 위주의 출세 지향적인 사회적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극소수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 생각된다.

④ 성적과 학사관리와 관련된 도덕성 문제

교수의 합법적 권위는 학문 연구와 올바른 교육실천에서 나온다. 흔히 필자가 대학을 학문적 기업과 도덕적 기업으로 지칭하는 연유도 강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참진리와 참다운 교육을 행하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지칭하는 의미에서이다.

특히 교수의 학사관리와 성적 처리는 대학에서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학 현실을 볼 때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부인할 길 없고 특히 학부제 도입 이후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우려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학점 관리의 방만함은 일차적으로 교수의 교육관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엄격히 구분하는 평가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취업 등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학점관리의 엄정성은 매우 중요한 교수들의 도덕적 측면이라 볼 수 있다.

⑤ 근무 자세와 관련된 문제

교수들의 도덕성과 관련된 또 다른 부분은 근무 자세에 대한 것으로서 일부 교수들은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열중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수주나 개인의 흥미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학생 개별 지도나 대학의 발전 방안 등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각종 심사위원이나 자문교수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드물게는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편향된 입장에 처해있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대학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있다. 교수들의 측면에서 과연 무엇이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인가라고 지적한다면 앞서 지적한 바대로 '지적 윤리' '교육윤리' 그리고 '서비스윤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교수상은 대학의 도덕적 결함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 대학의 도덕성 문제는 교수들의 역할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생들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1) 대학생의 도덕적 인식과 실천 태도

대학 구성원의 두 축 중 하나인 대학생들 또한 도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학

생들의 세속적인 문화에의 접근, 부정직한 컨닝 문화의 확산 그리고 무절제와 예의 범절의 무시 등 여러 관점에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1999)을 대상으로 한 도덕성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도덕성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2] 자기 스스로 판단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도덕성은 10점 만점에 7~8점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은 43.7%로 나타나 흥미롭다. 대학생들의 도덕성은 복합적인 측면이 많고 일반인들과는 달리 대학 캠퍼스 문화와 직·간접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단순히 결론지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스스로 10점 만점에 7~8점 정도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점은 도덕성에 대한 확신이 대단히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9.7%), '가끔 참여한다'(30.3%), '되도록 참여하지 않는다'(38.8%),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21.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자제되어야 할 문화 예컨대 음란물 보기, 성희롱, 금기시된 장소 출입, 폭음과 방가 등의 행동을 69.1%의 학생들이 되도록 참여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일부 학생은 가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학생도 9.7%로 나타나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편 때로는 문제 행동을 하는가를 물은 결과, 부모를 속인 경험이 있다는 대학생이 남학생 응답자 전체의 83%로 나타나 있다. 놀음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놀음을 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78%로 나타나 대학 문화의 한 단면을 짐작케 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으로 싸워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 본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9%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0.3% 정도로 나타나 있다.

한편 성적인 문제 행동을 해 본 경험 유무에 관해 물어본 결과 1/4에 가까운 24.7%의 학생들이 성적인 문제 행동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성적 문제 행동 중 음란물 소지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 음란물을 소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1.4%로 나타나 있고 '음란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다'는 경우는 53.8%로 나타나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8.7% 정도가 음란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 행동과 관련된 도덕적 판단은 단순히 비디오 시청 여부나 음란물 소지 여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한편 어떻게 자신의 도덕성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낮은 점수대인 1~2점 정도(0.3%), 3~4점 정도(2.8%)로 나타나 겨우 3.1%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전체의 82% 학생이 5~8점 정도로 반응하고 있어 적어도 평균 이상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1.9%의 학생들은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38.3%의 학생들이 중간이거나 중간을 조금 넘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점 또한 관심거리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들이 부모를 속인 경험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비록 3%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여자 대학생의 86%가 부모를 속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83%의 남학생이 부모를 속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2) 이현청, 『한국의 대학생』, 서울 : 원미사, pp 43~49.

2) 대학생의 도덕 판단 수준과 문제 행동

도덕 판단 수준과 문제 행동 유형에 관해서 상관을 검증한 연구들에 의하면 도덕성과 문제 행동 간에 커다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도덕성 수준은 이러한 예외적 행동 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한편 도덕적 자아 개념과 관련된 전공영역별 경향을 살펴 본 결과는 인문사회 계통의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있으며 특히 한 대학 연구에 의하면 10점 만점으로 할 때 사범대학교 학생들의 도덕적 자아 개념이 가장 높고 법대가 그 다음인 7.4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과대가 7.0이며 공대, 의대, 자연대 학생들이 7.2로 나타난 반면 정경대, 인문대, 경영대 등이 7.3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남녀별 도덕적 자아에 있어서는 여학생(7.1)이 남학생(7.3)보다 0.2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공중도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의 학생들이 '공중도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고 응답하고 있으며 17.6%의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준수한다' 고 응답하고 있으며 23.7%의 학생들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1.4%의 학생들은 공중도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100명의 대학생 중 1명 정도는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 공중도덕을 준수하거나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절반에 가까운 43.7%에 이르는 것으로 응답되어 철저히 지킨다는 학생들의 48%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나라 국민들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면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는 정직성(56.3%), 공중도덕(14.2%), 책임감(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어 도덕성의 결함 요소를 정직성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3) 대학생의 도덕성의 문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도덕성 측면은 인식 면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도덕성은 정직성의 결여와 책임감 부족 그리고 공중도덕, 성실성의 결여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도덕적 문맹의 사회' 라고 지칭할 정도로 도덕적 측면이 소홀히 되고 있는 데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덕성 측면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를 접하는 행동이나 혼전동거 등 성개방 풍조와 부모를 속인 경험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우려할 면도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도덕성을 우려하면서도 자신은 부모를 속인 경험이 많다고 반응한 점은 예외적 행동과 도덕적 자아간에 반드시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느끼는 캠퍼스 내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일면을 드러내어 흥미롭다. 즉 대학 캠퍼스 내에서 동료 학생들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3명 중 한 명 꼴로 캠퍼스 내에서 급우나 동료 학생들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 있는 행동을 목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전체 응답자의 29.8%).

따라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도덕성의 측면에 있어서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캠퍼스 내에서나 캠퍼스 밖에서 실제적으로 도덕적 행동만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도덕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대학인은 결국 그들

"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도덕성의 측면에 있어서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캠퍼스 내에서나 캠퍼스 밖에서
실제적으로 도덕적 행동만을 하고 있지 않다.
도덕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대학인은 결국
그들 스스로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탓도 있다.

"

스스로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탓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도덕성 문제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 볼 수 있다.

결국 한국 대학교육에서의 인적 구성요소의 한 축인 대학생들 역시 도덕성의 위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교육에서의 도덕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3. 대학 운영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

한국 대학에서 도덕성과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던 주요 부분은 대학 운영에 관한 것들이었다.

197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극소수의 대학이긴 하지만 학교 비리가 문제가 되어 왔으며 주로 입학과 관련된 '소위 B티오'에 대한 내용이나 족벌 운영에 따른 전횡, 회계 운영 부정, 총장과 재단 또는 총장과 교수들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비도덕적 요인이 발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되면서 책무성 문제가 대두되기 마련인데 대다수의 건전한 대학과는 달리 극소수의 대학의 경우 자율성의 기류를 타고 일부 잘못된 관행의 지속이나 무책임하고 전횡적인 운영의 결과에서 비롯된 도덕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대학의 자율성 신장은 책무성의 전제 없이는 의미가 없고 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비도덕성이 노출될 때 대학 본연의 기능은 불가능하다.

일부 한국 대학들에서 볼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문제 영역을 적시할 수 있다.

① 재정운영과 관련된 비도덕적인 측면, ② 인사와 관련된 비도덕적인 측면, ③ 학교 시설 설비 확충과 관련된 측면, ④ 학사운영 자율과 관련된 측면, ⑤ 대학 설립이나 정원 확충 등 발전 전략과 관련된 측면, ⑥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측면 등을 들 수 있다.

일부의 지적처럼 재단 전입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지 못하는 일부 부실 사학과 비리 사학 등의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대학 운영과 관련된 도덕성의 문제는 상존하는 위기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사회적, 지적, 개인적 도덕성을 강압하는 기제이고 동시에 문화적으로 전수되어 온 수많은 가치를 반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덕적 신념 위에 터할때 진정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3]

이 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대학의 도덕성의 원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한 대학의 발전 전략 노력과 교육적 노력이 최우선될 때 가능하

3) Davide, Purpel(1995), *The moral & spiritual crisis in education*, greenwood publishing Co., pp. 43~47

다고 생각된다.

Ⅲ. 한국 대학의 도덕성

한국 대학의 도덕성의 현주소와 도덕적 주체자들의 다양한 비도덕적 문제를 논한 바대로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도덕성 신장의 해답은 무엇이며 해법 또한 없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나라 대학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와 도덕성 해이 그리고 무감각 증후에 대한 우려를 귀담아 들어 왔는지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어떠한 이상과 목표를 설정하여 대학이념을 정립하고 대학의 이상과 사명을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들의 함의와 교육적 노력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대학의 이념은 독일의 Jaspers 이후 정통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의 3대 이념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기능 면에서는 문화 전달 및 창조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선발 및 분배의 기능 그리고 혁신과 진보의 기능 등으로 집약되어 왔다.[4]

더구나 대학은 변화하는 사회 체제이며 규범과 전통 그리고 엘리트 집단의 특성을 지닌 사회적 인격체이다. 특히 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책무를 고려할 때 상아탑적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고객중심의 교육적 실체인지를 스스로 선언해야 할 책무가 있다.[5] 따라서 대학의 이념 설정은 설립 당시의 설립 목적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대학은 '학습 중심 체제', '경영 중심 체제' 그리고 '고객 중심 체제'로 변모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대학은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닌 고유성과 지역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지니도록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이념과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지난 80여 년 동안 논의된 기존의 대학관 예컨대, Whitehead (1929)가 주장하듯 대학을 단순히 교수를 통한 지식의 전달이나 교수 개인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에 대한 창의적인 연찬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념을 수용한다면 대학의 목표도 이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고 교과과정 학과 편제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6]

이와는 달리 교양의 전달, 전문직 교육, 과학 연구와 젊은 과학자의 양성에 있다면 이에 부합되는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을 독립된 사고의 센터로 수용하는 Hutchins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산업화, 전문화 그리고 사회적 욕구에 부합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실체로서의 적응과 개혁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의 이념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충고는 Perkins의 대학론이나, Kerr의 대학론 그리고 근래 등장하고 있는 Mega-versity, 신대학론, Virtual university 등에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그 어느 이념이나 기능 하나 구성원들의 도덕적 각성과 도덕적 신념 그리고 도덕적 실천과 무관한 것은 없다. 우리 나라 대학의 도덕적 현주소는 앞서 논의한 바 같은 일련의 문제들과 깊은 연관이 있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상아탑 전체를 도덕적

4) 이현청(2000), 『21세기와 함께 하는 대학』. 서울 : 민음사, pp. 30~31.
5) Ronald Barnett (1995), *The Idea of Higher Education* (London : Open University Press)
6) Whitehead, A. N. (1967),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N.Y. : Macmillan), pp. 97~99

인 사각지대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대학과 대학인들의 도덕성은 건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최고의 교육 연구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도덕성에 조그만 훼손이라 할 지라고 대학 밖에서 보는 시각과 파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도덕성 문제는 한마디로 '대학지적 공동체'의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탓에 지적 공유, 지적 연대, 지적 윤리 등의 미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스승과 제자간의 학습동반자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학습자로서의 지적 실천과 참삶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도덕문화 공동체'나 '학습문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직원들의 경우도 교육 연구 지원 체제로서의 기능수행상 교육 지원 전문 집단과 도덕적 집단으로서의 교육윤리나 '교육경영문화 공동체'의 역할이 미비한 데서도 도덕성의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 하겠다.

대학에서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은 학생, 교수, 직원 그리고 재단과 최고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을 하나의 '도덕적 사회'화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도덕 문화 공동체, 도덕 지식 공동체 그리고 학습 윤리 공동체적 특성을 지니도록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추수 지도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관리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성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부터 교수 문화 재정립에 이르는 일련의 체계적인 구상과 실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ig brother, big sister' 프로그램이나 신입생 대상 '101 program', 교수의 지적 윤리와 교육 윤리를 위한 '교수 윤리' 선언 등이 시사하는 면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학 전체 차원에서 실천 운동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덕성과 관련된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인문·사회과학과 자연, 이공계 분야의 조화 그리고 기초와 응용의 조화를 통해 인격적 균형과 학문적 편식 현상을 배제하는 노력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흔히 도덕적 태도 형성의 기법이라 할 수 있는 KAP(Knowledge-Attitude-Practice) 기법도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도덕성의 문제는 구조와 체제에 있다기보다는 대학 공동체의 주체인 교수, 직원, 학생들의 의식 차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은 '도덕적 기업'임을 항상 상기할 때 대학에서의 도덕적 병폐는 감소될 것이다.

대학인들에게는 주관적 자아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객관적 자아를 염두에 두는 도덕적 주체자로서의 'me' 운동(moral-ethics)의 전개와 함께 교과 과정에서 봉사학습의 확대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다.